전남도, GS리테일에 '새청무' 쌀 2만톤 공급 협약

전국 GS25 편의점 등서 도시락·삼각김밥으로 판매

"전남 쌀 판로 확대·농가 소득 증대에 큰 힘 될 것"

전라남도가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GS리테일과 함께 전남 대표 쌀 품종 새청무 쌀 2만 톤(600억 원 상당) 공급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는 전남도와 GS리테일 간 협력 중 역대 최대 규모 공급 계약이다. 전남 쌀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 새청무 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참여한 김용경 장흥 정남진통합RPC의 대표, 서만원 순천농협 상임이사, 이효상 해남 화산농협 본부장, 이재윤 ㈜농협유통 양곡부 단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새청무 쌀을 활용한 신선식품 개발·출시·판매와 공동 마케팅 추진 ▲새청무 쌀 소비 촉진과 홍보 등 행정적 지원 강화 ▲새청무 원료곡의 안정적 공급이다.

GS리테일은 찰기와 윤기가 좋고 밥맛이 우수한 새청무 쌀을 활용해 전국 GS25 편의점을 통해 도시락, 삼각김밥, 한줄김밥 등 차별화된 신선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신선식품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새청무는 9년의 연구 끝에 개발된 품종으로, 현재 전국 점유율 1위, 17%에 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품종"이라며 "앞으로 GS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삼각김밥에서 활용하게 돼 전남 쌀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협력, 전남 쌀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도권 소비자 대상 영상 홍보 등 다양한 소비 활성화 활동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8월 CJ제일제당에 새청무 원료곡 1만 톤을 공급해 '햇반' 제품으로 출시 및 판매토록 했고, 전국 140여 얌샘김밥 매장에도 새청무 쌀을 지속 공급하는 등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도청 접견실에서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와 전남 대표 쌀 품종 '새청무' 쌀 활용 FF상품 출시와 안정적인 2만 톤 원료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가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전국 1위'

지방세 자료 연계 농업법인 투기 근절 성과…대통령상 수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추진한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이 적극행정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 광주시는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지방 재정 확충 성과'를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했다.

광주시 정책은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정보, 법인 재무재표, 농지직불금 내역,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조사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를 통해 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했으며 부동산업을 영위한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기초자료가 부족해 관리가 어려웠던 농업법인 분야에서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 협업해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농업법인의 탈법적 농지 활용과 부동산 투기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수상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농업법인 조사모델이 실질적 성과를 내고, 농업법인의 탈법적 농지 활용과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광춘 기자

광주 남구, 2025 지방자치 콘텐츠 공모 종합 대상

실버세대의 삶 주기에 맞춘 프로젝트에 이목집중

광주 남구가 지난달 2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기관에서 공동 주관한 '2025 지방자치 콘텐츠' 공모에서 종합 대상을 차지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회 시상식은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남구는 여성·시니어 분야에 참가, 전체 10개 분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종합 대상을 손에 넣었다.

이번에 선보인 정책은 실버세대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령화 시대, 인생 챕터에 맞춘 4색 프로젝트'로, 심사위원단은 실버세대의 삶 주기를 젊은 시니어와 고령 세대, 장수 세대, 세대 통합으로 구분해 각 시기를 아우르는 통합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영 시니어의 활기찬 삶을 위해 기존의 16홀 규모의 승촌 파크골프장을 36홀로 확장하고, 고령 세대 여가 활동 장려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산까지 절감한 사례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효행 실천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천세 축하금 제도를 도입하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으뜸효 남구TV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해 어르신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음악으로 소통하면서 지역공동체 문화를 싹틔운 부분도 호평했다.

남구 관계자는 "심사위원분들께서 이번 정책에 대해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미래형 고령사회 정책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의 전 부분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선보이는 남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가 2025 지방자치 콘텐츠 공모에서 '고령화 시대, 인생 챕터에 맞춘 4색 프로젝트'로 종합 대상을 차지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 서구, 취업자 100일 케어로 고용안정 실현

상담·피드백 등 맞춤형 관리…3년만에 취업자 정착률 10% 상승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취업자들의 초기 이직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100일 케어'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다.

서구는 2023년부터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한 주민을 대상으로 입사 후 100일 동안 상담·점검·코칭을 제공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취업자 정착률이 2023년 66%, 2024년 72%, 2025년 76%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초기 적응기를 집중 관리하면서 3년만에 10%포인트 상승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100일 케어 프로그램은 ▲1:1 맞춤형 전화 상담 ▲근무환경·업무적응 점검 ▲부족한 부분 피드백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을 통해 취업 초기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참여자들은 "꾸준한 상담 덕분에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돼 큰 도움이 됐다", "직장 적응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많은 의지가 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업의 만족도도 높다. 일자리센터를 통해 인재를 채용한 기업들은 "업무 적응을 돕는 사후관리가 기업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프로그램의 지속 확대를 요청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구직자가 오래 머무는 직장,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서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이뤄내는 착한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9개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청춘발산공작소 ▲치평거점센터 등 현장 밀착형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00여 명의 주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다.

/박석우 기자

광주 동구, 관내 73개 구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선포식 갖고 소상공인과 소통…"지역 상권 회복 기대"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달 27일 푸른마을공동체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동구 소상공인을 모시고 '동구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12일 관내 73개 구역, 4,890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관내 전 지역을 골목상권 지원 체계 안으로 편입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각 골목형상점가 대표와 지역 소상공인, 관계 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서는 참여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향후 추진 정책을 안내했으며, 소상공인들이 구청장과 직접 대화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전 지역 지정은 동구 상권 회복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온누리상품권, 동구랑페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효과가 지역 상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철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